

# '벌쏘임 사고 주의예보' 이달부터 운영

### 기후·환경 등 변화...말벌류에 대한 노출이 증가 소방청, 이달 말서 9월 중순까지 가장 조심 시기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벌 쏘임 사고 주의 예보제'를 처음 도입해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기후·환경 등의 변화로 말벌류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2017년~2019년 벌 쏘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1명이다. 최근 3년간 △2017년 12명 △2018년 10명 △2019년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벌 쏘임 사고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2017년 7552명 △2018년 6118명 △2019년 3081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2019년간 119구급대가 이송한 전체 1만6751명 중 1만2683

명(76%)가 7월~9월에 집중됐다.

소방청은 7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가 벌을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6~8월에 벌집 형성과 일벌 생산이 일어나며 9~10월쯤 신여왕벌과 수벌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일벌이 급증한다.

또 말벌류는 15°C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25°C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

예보제는 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분류되며 기온·벌의 생태·출동 상황 등을 분석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하게 된다.



장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은 "올해 벌 쏘임 사고 예보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국립소방연구원과 공동으로 시도별 안전지수를 산정하여 국민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 "산책 갔다"...방문판매업체 간 사실 숨긴 60대女 확진자

### 광주시, 비협조적 확진자에 강력 조치 예고

코로나19 광주 37번 확진자로 분류된 60대 여성이 보건당국 역학조사에서 방문판매업체에 간 사실을 숨기는 등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A씨(60대 여성·서구 화정동)는 광주 34번 확진자(60대 여성·광복사 방문)와 접촉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34번 확진자와 지난 24일 낮 12시쯤 광주 동구 '두암한방병원'을 함께 방문해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 지난 27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후 같은날 확진자로 분류됐다.

A씨는 최초 역학조사에서 방문

판매업체를 방문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해당 사무실에서는 추가 확진자 2명이 잇따라 발생, 지역 사회 'n차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린 상황이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10시13분까지 방문판매업체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광주 동구 '금양오피스텔'을 방문했다.

하지만 A씨는 최초 역학조사관이 급남로 일대를 방문한 이유를 묻자 "산책을 갔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

그러다 전날 A씨와 접촉한 60대 여성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들의 동선을 역추적한 결과 A씨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 43번(60대 여성·남구 봉선동), 44번 확진자(60대 여성·남구 방림동)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25일 금양오피스텔 방문한 사실을 확인한 보건당국은 이들의 동선을 역추적한 결과 37번의 동선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확진자들 중 일부는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극 협조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최대한 지원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밝히지 않을 경우 치료비 본인 부담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인호 기자

##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도 무겁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2심에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나 형량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달 30일 창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안인득은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내세우며 양형이 부담하다고 주장한 안인득은 이번에는 2심이 심신미약만 인정해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도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 사형에서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해 11월2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즉각 항소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선고형이 무겁다는 주장이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4일 안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진술, 태도, 심리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범행 당시 조현병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신적 장애에 의한 피해망상·관계망상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직후 피해 유족들은 20분 넘도록 법원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근 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 전남대병원, 코로나 재확산 방지 위해 병문안 통제 강화



전남대병원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병문안객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는 등 2차 유행 우려

가 제기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이같은 코로나 확산 추세에 '병원 감염'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무증상 확진자의 발생이 많아짐에 따라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환자나 보호자가 아니면 병원출입을 금해 줄 것을 권하고 있다.

또 최근 주말과 휴일 전남대병원을 찾는 내방객이 급증, 출입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출입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정 기자

## 9년간 병원 한번 안가고...갯돈 먹튀 60대女 덜미

갯돈 2억여원을 가지고 잠적했던 60대가 공소시효 만료를 1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63·여)를 구속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중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지인, 식당업주 등 4명에게서 받은 갯돈 2억2000만원을 가지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운영하던 식당이 어려움을 겪자 빚을 냈고 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돈도 생활비로 모두 써버린 A씨는 이후 9년 동안 전국을 돌며 지냈다. 가명을 사용해 식당에서 단기간 근무하고,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는 대신 약국에서 산약으로 버티며 수사망을 피했다.

사기죄 공소시효인 10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A씨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최근 전북 고창의 한 식당에서 A씨를 붙잡았다.

## 강풍에 좌초 어선 구하려던 선박도 파도에 휩쓸려

강풍에 좌초된 어선을 구하려던 선박이 파도에 휩쓸리며 함께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0분쯤 전남 해남 송호리 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1.49톤급 어선 A호가 좌초됐다.

이날 해남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높은 파도와 강풍이 불었다.

사고는 선장에 접안됐던 A호의 연결줄이 끊어지며 발생했고, 이를 목격한 1.28톤급 B호(승선원 2명) 선장이 A호 선장과 함께 보강 작업을 벌이던 중 B호의 연결줄까지 끊어지면서 어선 2척이 함께 해상에 좌초됐다.

## 여성 거주 원룸 인터넷 공유기서 몰카 발견

충남 아산의 한 원룸 인터넷 공유기 안에서 불법 촬영용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공유기 교체작업을 하던 기사가 원룸 공유기 안에서 소형 카메라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공유기에는 렌즈 위치에 맞춰 1mm 정도 되는 구멍이 뚫려 있고, 가로 7cm·세로 2cm 크기의 네모난 카메라에는 배터리 충전을 위한 장치도 연결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상 저장을 위한 메모리 카드도 내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개그맨 구속송치

KBS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카메라(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KBS 간판 예능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출연 공채 개그맨이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A씨를 지난달 30일 검찰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이며, 구체적인 수사사항은 2차 피해 우려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짧게 밝혔다.

A씨는 경찰이 5월 29일 'KBS내 몰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달 1일 새벽 경찰에 지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카메라가 발견된 곳은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KBS 연구동에 있는 화장실로, 최초 경찰 112에 신고한 직원은 이곳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기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 이튿날인 2일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증거 등을 확보했다. 이후 A씨의 불법 촬영과 관련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다.

이에 KBS 32기 공채 개그맨들은 'A씨 몰카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겠고, 피해자들을 향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씨가 활동해 온 개그콘서트는 지난달 26일 '휴식기' 명목으로 사실상 종영한 상태다.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

**준솔루션**